

#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을 적용한 무용창작작품 연구

- 「휘(暉), 빛의 노래」를 중심으로 -

박경은\* · 김명숙\*\*

---

I. 서론	V. 결론 및 제언
II. 음양오행의 개념과 원리	참고문헌
III. 음양오행의 원리를 적용한 춤사위	Abstract
IV.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을 적용한 무대표현매체	

---

## I. 서론

본 연구는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을 적용하여 구성한 본 연구자의 무용창작작품 「휘(暉), 빛의 노래」(2012)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자는 현대사회에서의 조화와 소통의 관계를 주제로 하여 오행의 상생상극의 원리가 잘 드러나 있는 대상인 단청(丹靑)을 모티브로 작품을 표현하고자 한다. 한국춤을 동양사상이라는 철학적 근거를 통해 연구하고 재해석함으로써 음양오행의 속성과 상생상극의 원리가 작품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구성과 춤사위를 모색하여 작품을 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춤이라는 것은 단순히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예술활동이 아니라 시대의 철학과 사회문화적 상징체계로 구성되어 어있는 예술활동으로서 사상적 깊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춤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그 춤이 염원하는 삶의 지향점에 대한 이해, 다시 말해서 춤의 기

---

\* 주저자, 이화여대, 경인교대 강사

\*\* 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교수, kms@ewha.ac.kr

저(基底)에 스며있는 사상적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는 사회발전의 원동력 가운데 문화가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경쟁력 있는 문화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통해 결국 각 문화권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과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각 문화권의 고유성과 독창성에 대한 고민은 결국 전통문화 콘텐츠에 대한 재조명, 재평가로 이루어져 우리로 하여금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 계승 발전시켜야 할 고유한 사상의 가치에 대해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에 접근함에 있어서 먼저 문화예술의 창조라는 것은 서로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의 산물이기 때문에 상대성을 인정하는 공존원리를 바탕으로 이해되고 분석되어야 하며, 그러한 가운데 계승 발전시켜야 할 고유한 사상적 가치에 대한 고찰로 이어져야 한다.

실제로 우리의 문화에는 유구한 역사만큼 오랜 시간동안, 그 의미를 따져 볼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광범위하고 일상적인 영향을 많이 끼쳐온 사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음양오행사상이다. 음양오행사상은 인간과 우주의 관계를 음과 양의 변화원리에 따라 풀어보려는 철학적 사상으로서 중국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동아시아 사상체계의 중심이 되어 온 원리이다. 이 음양오행사상은 의식주부터 의학, 건축, 문화예술의 영역까지 우리의 일상에 폭넓고 깊게, 그리고 꾸준히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 문화의 정체성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음양오행사상을 적용하여, 인간이 가져야 하는 본질적인 모습 가운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상생상극론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표현해 보고자 한다. 즉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협력과 조화의 관계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작품에서는 오행의 각 기운(氣運) 변화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단청의 ‘배색’이라는 시각적 요소를 활용하였다. 이는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막연할 수 있는 ‘음양오행’의 형이상학적 이치를 시각화하고자 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현대사회에서의 조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오행의 색채는 음양오행의 상생상극 원리를 통하여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와 상호 대립적인 구조의 특성으로 명확하게 보여줄 것이다.

음양오행사상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 만큼 음양오행사상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음양오행사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로, 김지희(2005)<sup>1)</sup>는 궁중춤과 민속춤의 춤사위를 음양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작용으로 분석하여 차이점을 비교연구 하였고, 김용(2008)<sup>2)</sup>은 오방처용무의 구성 체계를 춤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동작의 특징들을 분석하고 해석하였으며, 문은배·김가람(2012)<sup>3)</sup>은 기존 한국전통색의 색채의식에 대하여 고문헌 고찰을 통해 오방정색과 상극간색, 상생간색 등으로 색채 체계를 정립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우리 춤과 문화가 음양오행사상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 자료들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음양오행을 통한 전통춤의 구성과 춤사위에 대한 의미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방색이 사용된 사례를 분석하고 색채와의 관계를 상생과 상극의 원리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전개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음양오행사상을 중심으로 한 단행본, 논문, 학술지 등 문헌자료를 통하여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상호관계의 조화로운 소통을 위한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를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 그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개괄적인 이해를 선행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영상물, 사진, 그림 등 시청각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시청각자료들을 선정함에 있어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을 잘 드러낸 단청에 관한 자료들을 주로 활용하였는데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수집한 단청의

- 
- 1) 김지희(2005). 궁중춤과 민속춤의 춤사위 비교 연구(2) - 음양오행의 상생상극 원리를 바탕으로. 『대한무용학회지』 43, pp.39-58.
  - 2) 김용(2008). 현행 오방처용무의 역학적 해석: 춤의 전개과정과 『태극도설』을 중심으로. 『한국무용사학』 9, pp.69-97.
  - 3) 문은배, 김가람(2012). 한국전통색의 상생간색과 상극간색에 관한 연구: 이수신편과 규합총서를 중심으로. 『한국색채학 논문집』 26(3), pp.25-32.

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연구들은 신체의 움직임으로 드러나는 동작과 감정들이 무용작품에서 내포하고 있는 음양오행의 형이상학적인 성질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작품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연구자의 주관적 견해를 배제하지 못하는 것은 제한점이 될 수 있으나, 본 작품에 대해서는 안무자로서 안무의도를 해설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관적 견해가 포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의 원리를 통해 작품의 자체적인 의미나 가치를 제고하고, 이러한 것들을 작품에 어떻게 나타내고자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두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의 한국춤을 동양사상이라는 철학적 근거를 통해 연구하고 재해석함으로써 한국춤의 새로운 구성과 춤사위를 모색하는 작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관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 II. 음양오행의 개념과 원리

음양오행사상은 음양오행의 작용을 우주의 원리로 인식하고 설명하는 사상이다. 음양오행사상은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에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대대로 생활과 밀접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 중기 이후 성리학이 전래되었는데, 성리학은 음양오행의 작용을 세계의 원리로 인식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리학적 토대 위에서 조선이 건국되었고 그 후로 수백년 동안 조선의 통치이념으로써 강력하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후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리학적 세계관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사상과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음양오행사상은 우주의 근원이 음과 양이라는 두 기(氣)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 기(氣)로 이루어진 천지만물의 화성에 대한 역학적인 이론과 천문학적 사상을

말한다. 오행사상은 만물을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의 다섯 요소로 본 일종의 다원론으로 천지의 변이, 재앙, 인사의 길흉 등 모든 우주의 여러 현상을 체계화한 것인데, 우주나 인간사회의 모든 현상이 이러한 음양오행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본다.

음양오행의 원리는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유연하게 본질적인 이치에 접근하여 우주만물을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우주이며 자연이라는 것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는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 중에는 만물의 규칙적인 변화로서 우주의 절대적인 움직임인 동(動)과 불규칙적인 변화인 정(靜)이 있으며, 이것은 빠름과 느림으로 대변되는 자연의 순리(順理)이다. 이러한 자연의 순리는 원심력과 구심력에 의한 우주 행성들의 조화이자,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한 낮과 밤의 순환이며 공기의 순환이다. 또한 동시에 물질의 구성 요소인 원자와 분자의 관계이기도 하다. 인간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꽃이 낮에는 피고 밤에는 오므러지는 것처럼 지상의 모든 생물과 무생물들은 우주변화의 원리에 따라 상반(相反)되는 관계를 이룬다.

## 1. 음양론

음양이란 만물의 생성 변화를 설명하는 원리로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만물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나누어 비교해보는 이분법(二分法)적 접근방식이다. 이는 오랜 시간동안 인류가 사용해온 인지(認知)의 가장 초보적이면서도 논리적인 구분 방법이기도 하다. 음양의 개념을 차례로 나열해보면 일원(一元: 태극(太極)), 양의(兩儀: 음양(陰陽))-이분법 사상, 삼재(三才: 천(天), 지(地), 인(人); 해, 달, 별)-삼분법 사상, 사상(四象: 태양(太陽), 태음(太陰), 소양(少陽), 소음(少陰)), 오행(五行: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 육합(六合: 동(東), 서(西), 남(南), 북(北), 상(上), 하(下)), 팔괘(八卦: 건(乾), 태(兌), 이(離), 진(震), 손(巽), 감(坎), 간(艮), 곤(坤))... 등의 개념으로 세분화된다.

음과 양은 나누어지기 전에는 서로 혼돈된 상태였으나,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누어졌으며 그 결과 분리되어 커다란 흐름으로 나뉘어져 서로 대립

하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의 결과, 음양은 대립되는 것이기도 하나 서로 균형을 이루게도 하는 것이며, 이것이 궁극적인 음양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우주의 원소를 2개로 나누어 보면 열기와 냉기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생명의 두 축도 나누어 보면 생성과 소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의 뿌리도 음양의 2원론적인 구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음의 계열은 모아지고 뭉치는 것이 기본 특성이고 양의 계열은 흩어지고 펼쳐지는 것이 기본 특성이다. 이러한 음과 양에서는 맞물림은 하나가 둘로 갈라지는 것으로 이는 균형으로서 음양이 되며, 어울림은 둘이 하나로 되는 것으로 이는 조화로서 태극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음양의 이치이고 이러한 이치는 세상의 모든 것이 짝을 이루며 돌아가게 한다.

이러한 음양론은 사물의 현상을 인식하는 보편적 관념으로 발전하여 오면서 동양문화권의 사유세계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음양론의 중요한 핵심인 음과 양의 대립구조는 그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므로 음양의 대립을 넘어서 조화에서 창조와 생명력이 형성된다는 것이 음양에 대한 궁극적인 관념이다.<sup>4)</sup>

음양론의 진가는 음양이 다방면으로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변화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음양론의 관계들은 여섯 가지의 기본원리, 즉 상호대립(相互對立), 상호의존(相互依存), 상호소장(相互消長), 상호전화(相互轉化), 분화법칙(分化法則) 그리고 체용법칙(體用法則)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상호대립의 원리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우주의 모든 것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높은 것과 낮은 것, 큰 것과 작은 것, 밝은 것과 어두운 것과 같이 그 반대가 되는 것이 우주 내에 존재하며 그런 관계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으로 우주의 모든 현상은 음이나 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상호의존(相互依存)의 원리는 음양은 서로 의존한다는 것이다. 상호대립의 원리로 형성된 모든 것들은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것에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높은 것은 낮은 것을 통해서 의미를 찾

4) 이은봉(1985). 음양사상의 해학적인 설명. 『한국종교의 이해』(서울: 집문당), p.235.

을 수 있고, 큰 것은 작은 것, 그리고 밝은 것은 어두운 것을 통해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서 그 반대되는 것에 의해 분명히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상호소장(相互消長)의 원리는 음과 양이 서로 소모하며 도와주고 있다는 것으로 상호의존의 원리에서 더 나아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설명이다. 즉, 음양의 힘은 상대적이지만 대립과 의존의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서로 소모하고 도와주는 과정을 통해서 평형을 이루며 존재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음이 강해지면 양이 감소하며 소멸하게 되고, 반대로 양이 강해지면 음이 감소하며 소멸하게 되는데 이는 음과 양이 서로 영향을 주며 균형을 이루려 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상호전화(相互轉化)의 원리는 음과 양은 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음양의 관계를 소모와 교환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인데, 음은 양으로 변화하게 되고 양은 음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분화법칙(分化法則)은 우주의 모든 것은 순수한 음이나 양이 없으며 모든 것이 음양의 성분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음과 양의 관계는 계속해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체용법칙(體用法則)은 음과 양은 관점에 따라서 형체와 작용이 바뀔 수 있다는, 즉 형체와 작용이 음양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물체가 음인지 양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것으로 형체는 움직이지 않고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음이고, 작용은 움직이고 형체보다는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양으로 설명하지만 음이 형체라면 양은 작용이 되고, 양이 형체라면 음이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것, 즉 관점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 2. 오행론

오행의 개념은 태극이라고 불리우는 통일체가 음과 양이라는 두 가지 기운으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그 음양은 또다시 각각 분합작용을 일으킴으로써 다섯 개의 새로운 성질이 발생하게 되었으니 이것을 오행이라고 한다.<sup>5)</sup> 우주의 삼라만상은 오

행이라는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데 오행에 따라 변화하고 소멸하기도 하고 생성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오행은 음양의 변화 작용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용어로서 우주의 삼라만상 간에 운행하는 원기(元氣)로써 만물을 낳게 한다는 다섯 가지 원소의 운동과 상호작용으로 우주의 모든 현상과 만물의 생존을 관찰하여 설명한 일종의 사상 철학 체계이자 과학의 원리다.<sup>5)</sup> 오행의 개념은 우주가 가는 다섯 가지의 길(道)이며 동시에 원운동을 하듯 순환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 수축과 팽창을 하는 행동규범인 것이다.

오행은 음양에 속하는 힘의 중재를 받아 다시 다섯 가지 힘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서로 다른 속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동적이며 불변하는 속성은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라는 다섯 가지 성질로 구분하는데, ‘다섯 가지 성분이 돌아다닌다’는 글자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정신적인 형상과 물질적인 형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오행은 그 성질과 기질에 따라 원만하게 화합할 때 순리에 의한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오행은 색채와 음악에서도 그 원리를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색채에 대해서 살펴보면, 동양의 색채개념은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유기체적 관점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위를 지칭하는 색의 표현으로 오방정색, 이를 줄여서 오색(五色), 오방색(五方色) 또는 오채(五彩)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구성된 다섯 색은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이다. 청은 동방(東方)의 정색으로 木에 속하고, 적은 남방(南方)의 정색으로 火에 속하고, 황은 중앙의 정색으로 土에 속하고, 백은 서방(西方)의 정색으로 金에 속하고, 흑은 북방(北方)의 정색으로 水에 속한다.

색채는 색의 표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오정색을 인격의 덕목인 오상(五常)에 대응시키기도 하고, 제례(祭禮)에는 홍동백서(紅東白西)에 맞게 제수(祭需)를 배치하는 등 오정색의 상징적 색채관은 동양인의 생

5) 한동석(2001). 『우주변화의 원리』(서울: 대원출판), p.58.

6) 권일찬(2010). 『동양과학개론』(청주: 충북대학교 출판부), p.374.

활문화 전반에 적용<sup>7)</sup>되기도 하였다.

음악에도 동양철학의 원리에 영향을 받은 개념체계가 있는데, 동양의 음악을 설명함에 있어서 악기의 형태, 줄의 수나 장단, 박자, 5음 음계 등 많은 부분들이 음양과 오행, 그리고 삼재론 등의 배경에서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음악사상을 음률에 적용한 5음 12율과 각 악기들이 가지고 있는 음(音)의 성질에 따라 음양으로 구분하여 악기가 제조되었으며, 그리고 우리 전통음악의 12박 1장단의 형식 등 모든 음악적인 영역에서도 오행은 세계관과 철학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3. 상생상극론

모든 동양사상은 삼라만상이 상대되는 짝을 가지고 있다는 음양론과 자연의 변화 원리를 고찰하여 체계적으로 정립한 오행론에 기초하고 있는데 오행론의 근간을 이루는 변화의 기본 법칙과 작용은 상생과 상극에서 찾을 수 있다. 오행에는 구성원 서로가 도와주거나 견제하는 관계 법칙이 있는데, 도와주는 관계를 상생(相生)관계, 견제하는 관계를 상극(相剋)관계라 한다. 음이 양을 생하고 양이 음을 생하는 법칙은 상생에 해당하고 음과 양이 만나 서로 대립하는 것은 상극에 해당한다.<sup>8)</sup> 상생에는 밀거름이 되는 희생과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의미가 담겨 있으며, 상극에는 처음부터 생장을 못하도록 막는 극제(剋制)와 일정한 것만 허락하고 더 이상의 진행은 막는 억제(抑制)의 뜻이 들어있다.

상생과 상극은 돕는 작용과 막는 작용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역할을 통하여 만물의 변화를 주도하는 관계로 이해되어야 하는데, 상생은 길한 것이고 상극은 흉한 것이라는 단편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생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고 상극이 없으면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상극은 상생의 지속적인 성장을 발전으로 유도하고 상생은 상극의 고통을 한 단계 성숙한 성장으로 이끌어 결

7) 송환아(1997), 한국 전통회화의 색채 미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유교학회』 9(1), p.219.

8) 이성환, 김기현(2002), p.304.

국 상생과 상극은 변화를 통해 순환하는 자연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상극작용은 대립적인 관계에서 개체성을 이끌어내어 상생의 지속적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을 만들며, 생성의 결과에서 일어나는 넘치고 부족한 현상을 다스리고 바로 잡아 균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생존방법을 말한다.<sup>9)</sup>

상생관계란 하도(河圖)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행 간에 서로 낳고 낳아 무궁히 순환하는 관계를 의미한다.<sup>10)</sup> 순서는 목생화(木生火)→화생토(火生土)→토생금(土生金)→금생수(金生水)→수생목(水生木)의 순서로 진행된다.

상극관계는 낙서(洛書)에서 처음 비롯된 것으로 오행간의 상호제약을 통제 억제관계를 나타낸 것이다.<sup>11)</sup> 순서는 목극토(木克土)→화극금(火克金)→토극수(土克水)→금극목(金克木)→수극화(水克火)의 순으로 진행된다.

상생의 힘인 생력과 상극의 힘인 극력이 만나서 새로운 상생과 상극의 흐름을 만드는데 만물은 이러한 흐름에 의해서 새로운 원운동이 일어난다. 원운동은 상생과 상극의 벡터(vector)의 합으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생력만 있고 극력이 없으면 운동이 한쪽으로만 일어나 결국 사라져 버린다. 이 상생상극의 운동을 주재하는 주체는 오행 중에 중재의 역할을 하는 토(土)이며 목적은 음양의 조화를 위한 영원한 운동이라고 한다. 이때 양과 음은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상생은 양이고, 상극은 음이 된다.<sup>12)</sup>

오행의 상생작용은 목, 화, 토, 금, 수가 차례차례 생성해 간다는 형태로 서로 공생(共生)과 윤회(輪廻)의 우주순환 주기를 나타낸다. 반대로 오행의 상극작용은 목, 토, 수, 화, 금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여 반작용의 의미가 있다. 지구 위에서 발생하는 만물은 생하기도 하고 극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든 현상을 상생상극 관계라고 하며 오행의 다섯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설명되어 진다.

9) 김재두(2006). 『음양오행의 우주세계』(서울: 대보학당), p.158.

10) 권일찬(2010), p.378.

11) 앞의 책, p.379.

12) 이성환, 김기현(2002), p.307.

### III. 음양오행의 원리를 적용한 춤사위

일반적으로 한국춤의 원리체계는 음양오행의 영향을 깊이 받아왔다고 알려져 있다. 그 동안 한국춤의 미적 특성이나 미학사상에 대한 다양한 연구 혹은 동작구조에 대한 분석에서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음양오행의 기본구조와 원리가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이는 천지인이라는 우주 공간의 의미와 소우주로서의 신체 내면의 구조를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그 원리를 체득하는 자연스러운 형상화의 과정으로 시대를 거치며 체화를 거듭하여 표현되어온 산물이기 때문이다.

춤사위에는 음에서 양이 나오고 양에서 음이 나오는 음양소장법에 따른 변화의 법칙이 있는데, 팔을 펴는 사위는 오므린 사위에서 비롯되고, 오므리는 사위는 펴 있는 사위에서 비롯되는 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원을 그리는 사위도 이와 마찬가지로 지인데, 모든 춤사위는 일차원의 사위든 이차원, 삼차원의 사위든 일정한 고유의 형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춤사위는 출발점과 경유점, 그리고 도착점이 있어 반드시 음양적 굴신(屈伸)의 변화가 있으며, 이와 같은 원리를 떠난 예외적인 춤사위는 전통춤에는 없다.<sup>13)</sup>

결국 춤사위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움직임의 모든 형태 하나하나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특히 한국춤은 생성소멸을 반복하고, 발전하고 변화되는 가운데 다양한 형상을 만들어내는 우주만물의 운행 원리와 부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음양의 특성인 '대립하면서 서로 끌어당기는 관계', '상대가 의존하는 관계'가 한국춤의 원리로 나타나는 구조로 몸을 통해 표현되는 움직임은 시간과 공간적 변화 속에서 반복, 순환하는 가운데 춤사위가 형성된다. 또한 동작과 동작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대립되는 동작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구성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춤사위를 구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춤사위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한국춤을 무용창작작품 『휘(暉), 빛의 노래』에서는 오행의 속성에 의미를 부여하여 음양의 원리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13) 김용(2008), p.77.

첫째, 목(木)의 성정은 인(仁)을 나타내므로 어질고 착한 소년과 같은 따스한 품성이 춤사위에 담겨있다. 몸통에서부터 팔이 서서히 밀어내어 부드럽지만 안으로 끌어 모아지는 기운은 저장한 상태에서 점점 위로 뻗어가는 속성을 나타낸다.

목의 특성인 생명력이 대지를 뚫고 한줄기로 뻗어 오를 때 힘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몸을 뒤틀며 일어나는 것으로 용출(湧出)하는 기운의 원리를 적용한다. 그 기의 흐름을 분석하여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표 1> '목(木)'의 춤사위 특성

오행	일반적 속성	작용	방향	기(氣)의 흐름	춤사위
木[陽]	가벼움[陽]	생성[陽]	상승[陽] 원심력[陽] 외부[陽] 우선회무[陽] 하[陰]→상[陽]		

목의 춤사위는 양팔을 겨드랑이 안쪽에서부터 틀어 시계방향으로 돌리는 모양새로서 나무의 나이테가 돌아 올라가는 형상을 표현한다. 움직임의 시작점은 몸통으로, 몸통이 중심점이 되어 몸통 가까이에서 손끝부터 밀어내어 돌아가는 방향을 향하여 손목을 꺾어 팔꿈치가 몸통과 가깝게 당겨져 있는 상태에서 나무의 테두리를 그리 듯 회전한다. 반대쪽 팔은 몸의 뒤쪽에서 몸통 앞의 팔과 대칭을 유지하며 대칭된 구조를 보여준다. 이때 발을 내디딘 다음 그 발이 허리로 이어져 몸통 전체가 비틀어져 돌아가게 되는데 이는 분명한 방향성을 나타낸다. 이는 생명의 시작과 활발함을 미래 지향적인 개념으로 표현한 것이다. 연결되는 동작은 수직의 방향으로 양팔을 겨드랑이 위로 펼쳐 올리는 동작으로 호흡할 때 공기를 흡입하는 속성을 기지개를 펴는 것과 같은 형태의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둘째, 화(火)의 속성은 한 곳으로 뻗어나가는 성질이 아니라 불규칙하게 이곳저곳으로 방사형으로 퍼지는 형태를 나타내며, 항상 발산하려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화의 특성은 발산적(發散的) 에너지와 밝음, 진취적이고 용감하며 적극적인 성격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화의 춤사위는 위로 오르는 기운이 극에 달하는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그 기의 흐름을 분석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화(火)’의 춤사위 특성

오행	일반적 속성	작용	방향	기(氣)의 흐름	춤사위
火[陽]	활동적[陽] 적극적[陽] 밝음[陽]	전진[陽] 흠어들임[陽]	전진[陽] 외부[陽] 하[陰]→상[陽]		

화의 춤사위는 생명력이 분산하는 기운을 표현한 것으로 내뿜어지는 기의 흐름을 타고 두 팔이 하늘을 향해 뿌려질 때 마지막 손끝이 스르르 흔들리는 동작이 특징인데 이것은 모든 것을 풀어내려는 의미로 하늘을 지향하는 속성을 나타낸다. 또한 두 팔이 마치 활개치듯 치맛자락을 좌우로 들어 올려 펼치는 동작에서도 손끝의 흔들림은 음악에 있어서의 꾸밈음과 같이 화려함을 보인다.

몸의 중심은 단전에서 잡아주어 하체동작은 무겁게 이동하고, 호흡은 펼쳐지는 팔의 각도와 방향에 따라 연결된 손끝으로 보낸다. 연결되는 동작은 위로 향하여 뿌려진 팔이 몸통을 지나 왼팔은 사선으로 오른팔은 옆으로 뿌려지는 동작을 하며 몸의 방향을 전환한다.

셋째, 토(土)의 성정은 참되고 약속을 중히 여기는 것으로서 신(信)에 해당하는 데, 움직임의 변동을 적게 하고 감정의 절제를 통해 외부의 흐름에 좌우되지 않는 마음의 균형을 개체의 표상방식으로 나타낸다. 이런 토의 작용은 원심력과 같아서 생명이 계속 반복되도록 하여 우주만물의 운동을 끊임없이 순환하게 하는, 곧 조화와 중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토의 춤사위에서 나타나는 기의 흐름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토(土)’의 춤사위 특성

오행	일반적 속성	작용	방향	기(氣)의 흐름	춤사위
土[陰陽]	중화(中和) 내양외음 (內陽外陰)	순환[陰陽] 유지[陰]	구심력[陰] 원심력[陽]		

토의 춤사위에서 목, 화, 금, 수가 순환하도록 중화(中和)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토를 나타내고 있는데, 춘앵전의 무작과 같이 힘의 분할이 상하좌우가 같은 상태로 양쪽 소매의 끝을 잡고 연결하여 수평을 이루게 하여 신체의 중심점이 중심선상에서 이탈되지 않게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무(無)동작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느리게 흘러가는 과정으로 동작과 동작 사이를 긴 호흡으로 연결하여 정지한 것과 같은 움직임을 통해 감정을 집중시켜 주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러한 토의 춤사위는 한국춤의 미적 특징인 정중동의 미를 적용시켜 설명할 수 있는데 정지된 듯 절제된 움직임 속에서 자유자재로 고요함이 가지고 있는 역동적인 힘을 느끼게 해주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닌, 느린 움직임에서 흘러나오는 무한한 호흡과 에너지로 설명할 수 있다. 사용하는 호흡에 따라서 인체 각각의 마디를 통해 순차적으로 전달되어, 그에 따라 나타나는 몸의 형태는 단전에서부터 손끝과 발끝까지 전달되는 과정 속에 곡선을 이룬다.

연결되는 동작은 호흡과 몸의 중심점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쪽 소매 끝을 잡고 있는 팔로 사선 오른쪽 아래부터 머리 위로 돌려주는 동작을 하며 회전한다. 단전에서 생성되는 양의 기운은 상하로 상승과 하강의 기의 흐름을 통해 사지로 전달하고, 음의 기운이 생성되는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간적 차이를 두며 가장 마지막으로 전달되는 손끝과 발끝까지 기운을 연결한다. 이는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상하구조의 구조적인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춤사위로 형상화한 것이다.

넷째, 금(金)의 성정은 외강내유한 상으로 표면은 단단하나 안으로는 삭아 부스러지는 유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동작에서도 기교적이고 형태적으로 무언가를 이루게 하기보다는 하체 동작, 즉 응축된 느낌으로 밑으로 구부려 내려가는 동작이 중심을 이루어진다. 금의 특성은 수렴(收斂)과 응축으로 나타난다. 금의 춤사위에 나타난 기의 흐름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금의 춤사위는 양손의 손목과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을 주어 강하게 쥐고 세상을 보는 눈을 가린 상태에서 두 손을 몸 앞쪽에서 모아 아래쪽으로 무겁게 끌어 당겨 내려가는 동작으로 위로 분출하는 단계 이전의 응축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낸

〈표 4〉 ‘금(金)’의 춤사위 특성


오행	일반적 속성	작용	방향	기(氣)의 흐름	춤사위
金[陰]	비활동적[陰] 무거움[陰]	모아짐[陰]	내부[陰] 하강[陰] 상[陽]→하[陰]		

다. 금은 맺어지고 모아지는 힘으로 결실의 상징으로써 벌어졌던 양팔이나 다리가 모아지고 합장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손으로 눈을 가리는 동작으로 등장하는 의미는 세상과 가장 먼저 관계하게 되는 눈을 가림으로서 내면의 소심한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점차 몸을 낮춤으로써 강한 힘이 나타나게 한다. 낮지만 적극성을 보여주는 금의 춤사위는 상체의 움직임은 절제하고 하체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아래라는 방향의 움직임을 강조한 것이다.

다섯째, 수(水)의 성정은 자유롭고 유연한 사고, 생명의 고향으로 자유자재인 특성이 나타난다. 수의 춤사위는 만물을 모두 포용하고 감싸 안는 것을 의미하며 오행의 가장 마지막 단계이지만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춤사위에 나타난 기의 흐름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수(水)’의 춤사위 특성

오행	일반적 속성	작용	방향	기(氣)의 흐름	춤사위
水[陰]	유연함[陽]	변화[陽]	상승[陽] 하강[陰] 외부[陽] 내부[陰]		

수의 춤사위는 자유롭고 유연하게 팔과 몸통을 사용하여 위와 아래 방향을 모두 사용하는 동작으로 안으로 기운이 모여져서 발산하는 기운을 나타낸다. 유연하다는 것은 긴밀하게 모여서 하나가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직선과 곡선이 서로 반전하면서 부드러운 선의 흐름을 엮어내는 것이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내리는 팔선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흐르는 물의 형태를 표현한 것이다.

수의 기운은 금의 기운보다 더욱 움츠러 드는 듯, 안으로 기운을 모아 발산하기 전의 기운을 뜻하고, 춤동작이 공간적으로 아래에 있지만 발밑에서부터 호흡을 끌어당겨 올리기도 하고 위에서 맺어있던 호흡을 자연스럽게 풀어내기도 하는 유연함을 특징으로 한다. 스며들지 않는 곳이 없는 물처럼 지모가 뛰어난 수의 성정은 지(智)로서 움직임에서도 자유로우면서도 유연한 동작으로 연결하여 형상화한다.

이상의 오행의 춤사위는 기의 흐름을 오행의 특징과 음양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한국춤의 원칙을 구현한 춤사위로 작품의 주제와 상징적인 의미 해석을 춤사위를 통해 표현하였다.

#### IV.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을 적용한 무대표현매체

무용창작작품 「휘(暉), 빛의 노래」는 오행의 기운을 가진 ‘색’을 ‘나(휘, 暉)’라는 개인으로 표현하면서 각 색에 오행의 사상들을 부여하고 색과 색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단청(丹青)’에서 나타나는 배색의 조합이 통합과 상생을 지향하는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색 배열의 질서가 활용된 단청의 이미지를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를 토대로 ‘고색(古色)’, ‘중첩(重疊)’, ‘휘(暉), 빛의 노래’라는 세 개의 장으로 나누어 각 장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사상을 안무에 적용시켜 작품화하였다. ‘고색(古色)’은 도입부로서 오행의 기운을 가진 색(휘, 暉)들이 오랜 시간 다섯 가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지내온 각자의 모습들을 그 색들이 어우러져 단청을 이루고 있는 장면으로 표현하였다. ‘중첩(重疊)’에서는 오색이 배색의 조합에 따라 상생과 상극의 관계를 형상화하며 대립과 갈등, 협력과 조화의 관계를 표현하였다. 마지막 ‘휘(暉), 빛의 노래’는 실질적인 주제를 드러내는 장으로서, 서로 간의 관계와 영향이 ‘어울림’에 이르는 과정을 그려내었는데, 상생과 상극의 반복적 순환을 통하여 얻게 되는 색 배열의 질서를 오행의 조화로움으로 표현하였다.

표현방식에 있어서 무대표현매체는 조명, 공간구성, 의상, 음악 등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의 원리와 관련된 시각자료를 연구하여 작품을 구성하는데 활용하였다.

첫째, 조명은 각 장면의 주제에 따라 오행의 기운을 가진 각 색들의 길을 다섯 가지 걸음걸이, 어우러진 색들의 빛바랜 단청 속 상생과 상극의 관계, 그리고 끝없는 상생과 상극의 반복에서 얻어지는 오행의 조화로움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다섯 개의 길로 이루어진 일렬 배열의 구성은 음양론에 입각하여 객석을 기준으로 무대의 앞, 중간, 그리고 뒤의 길에 밝은 조명을 사용하여 양(陽)의 길을, 그 사이의 길은 어둡게 하여 음(陰)의 길로 표현하였다. 양과 음으로 나누어진 길의 밝기는 시간에 흐름에 따라 밝았다 어두웠다를 반복하여 음양 간의 상호작용을 표현하였다. 오행의 상생과 상극 흐름도를 통한 구성은 간방(間方)형을 이루고 있던 다섯 명의 무용수가 정방(正方)형의 대형으로 변화되면서 시계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고보 조명을 연출함으로써 끊임없이 돌아가는 우주의 흐름을 표현하였다.

오랜 상생상극의 반복됨으로써 얻어진 우주 속 조화로움에 대한 마지막 장면에서는 끝없는 우주 속 공간을 표현하기 위하여 상수 무대 앞 밑에서 하수 뒤를 향 한 빛을 주고 하수 뒤에선 상수 앞을 향해 깊고 은은한 고보무늬의 빛을 줌으로써 다시 새롭고 소중한 의미를 이어가는 신비로운 장면을 연출하였다.

둘째, 장면구성은 주제와 관련하여 오행의 상징적 공간, 상생상극의 상보적 구성, 도(道)와 무(無)의 순환적 시간으로 나누고, 오행을 표현하기 위하여 5명의 무용수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움직임으로 표현하였다. 각 배역을 가지고 서로간의 관계를 통해서 상징적인 공간을 만들어 시각화하였다.

1장은 음양의 빛으로 표현한 다섯 가지의 길을 무용수 5명이 각자의 움직임과 호흡으로 이동하는 동선의 구성 형태이다. 2장에서는 상생관계를 간방(間方)형에서 정방(正方)형의 변화하여 서로 상승하고 보완하는 모습을 오행의 상생 흐름도의 구성형태로 나타내고, 상극관계에서는 대립적인 2인무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나누어 두 그룹, 네 그룹으로 이룬 대칭적 구도를 띤 대무 형식의 구성으로 강조하였다가 오행의 상극 흐름도로 연결하여 오방(五方)형의 위치에서 각자에게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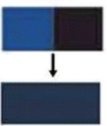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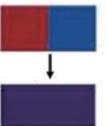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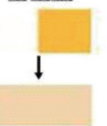

〈표 6〉 무용창작작품 「휘(暉), 빛의 노래」의 장면구성

장면구성	주제어	구 성	분 석
오행(五行)의 상징적 공간	다섯 가지 길		오행을 표현하기 위하여 오행의 기운을 가진 다섯 가지의 색에 대한 묘사
	고색 단청		색채적인 측면에서 빛바랜 단청을 오방간색(五方間色)으로 시각화
	중화(中和)		토의 중화, 중용의 작용을 통해 각 행을 아우르는 것을 표현
상생상극의 상보적 구성	상생관계		오행의 상생 흐름도로 정방(正方)의 대형에서 木→火→土→金→水로 생(生)하는 관계
	상극관계		오행의 상극 흐름도로 오방(五方)의 대형에서 水→火→金→木→土로 극(克)하는 관계
	상충관계		종적(縱的) 대무를 표현하며, 특히 음의 간색인 규색[金]과 양의 간색인 정색[火]을 통한 대비를 표현
	대칭과 비대칭		유기적인 관계의 동작으로 연결하여 단청의 당초무늬인 넝쿨을 형상화
도(道)와 무(無)의 순환적 시간	색 배열의 질서		상생과 상극의 반복되는 순환적 구도로서 그 흐름을 구성
	도(道), 무(無)		‘어울림, 소통’을 도(道)와 무(無)에 이르는 것

극되는 각 행과의 관계의 위치로 이동하여 시계 반대방향으로 몰아서 돌아가는 구성으로 극대화된 장면을 나타낸다. 3장으로 연결되는 상극관계에서 다시 상생관계로 이르는 과정의 장면은 색 배열의 질서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무대 뒤 중심에서 점차 앞으로 나오며 섞여지는 무용수의 움직임 속에서 서로 끌어당기고 밀어내지는 원리에 의하여 대칭적 구성을 이루며 대열이 바뀌도록 하였다. 움직임 자체에서도 전후좌우의 대칭을 맞추는 특성을 지닌다. 3장에서의 독무와 군무의 대칭과 대조를 보여주는 장면은 오행의 요소들 간의 관계와 작용의 원리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독무는 오행을 중재하는 토(土)의 평온한 춤사위와 다섯 가지 기운의 상징적인 춤사위를 표현함으로써 다시 채색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장면구성들을 표로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셋째, 의상은 작품의 모티브가 된 ‘고색단청’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음양 오행의 ‘오방간색’을 적용하였으며, 오방간색을 통하여 상생상극의 원리를 함축적으로 표현하였다. 먼저 음양의 원리에 의해 하의는 양의 정색인 금(金)에 해당하는 백색(白色)을 사용하고, 상의는 음의 간색인 암색(黯色), 정색(靑色), 유황색(驪黃色), 규색(矽色), 녹색(綠色)을 사용함으로써 정색[陽]과 간색[陰]을 상의와 하의에 적용하여 음양의 조화를 나타내었다. 또한 상의에 적용한 오방간색은 상생관계로 이루어진 암색, 정색, 규색의 사용과 상극관계로 이루어진 유황색과 녹색을 사용하여 상생간색과 상극간색을 모두 사용하여 상생과 상극의 간색을 조화롭게 조합하였다. 작품의상의 상의에 사용된 상생간색과 상극간색을 표로 정리하면 <표

<표 7> 무용창작작품 「휘(暉), 빛의 노래」 ‘오방간색’ 의상의 색채

오행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
관계	상생관계 水生木 	상생관계 木生火 	상극관계 土克水 	상생관계 土生金 	상극관계 木克土 
의상색	암(黯)색	정(靑)색	유황(驪黃)색	규(矽)색	녹(綠)색

7)과 같다.

넷째, 음악은 음양오행의 춤사위와 어우러질 수 있는 악기와 장단을 사용하고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을 내포한 '조화와 화합'을 표현하기 위해서 현대적이면서도 동양적인 감성을 지닌 음악을 사용하여 작품의 음악적 흐름을 전개하였다.

작품의 음악적 특성은 기(氣)와 질(質)의 개념을 악기에 적용하여 기(氣)순환의 흐름을 나타내고, 한국전통음악의 장단과 리듬구조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작품음악에 사용된 악기의 조합에 적용되어 피아노의 영롱한 소리와 종소리, 타악기의 둔탁한 북소리와 박을 조합하여 대비된 악기의 구성으로 음과 양을 조화롭게 하였다. 피아노의 맑고 가볍고 영롱한 소리가 베이스에서 받쳐주는 각종 타악기들의 무겁고 탁한 소리와 대조되며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벼운데서 무겁게, 무거운데서 가볍게 하여 기(氣)가 순환되고 있다는 원리를 강조하였다. 기(氣)와 질(質)의 특성을 표로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무용창작작품 「휘(暉), 빛의 노래」 '기(氣)와 질(質)'의 음악적 특성

음양오행을 통한 주제어	작품에 적용된 작용의 원리	작품에 사용된 악기의 조합
기(氣)	음양, 맑음, 가벼움, 하늘[天], 장구의 채편	피아노의 영롱함, 종소리
질(質)	오행, 탁함, 무거움, 땅[地], 장구의 북편	타악기의 둔탁함, 북소리

이러한 무용창작작품 「휘(暉), 빛의 노래」는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이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대상인 '단청'의 이미지에서 분석된 원리를 바탕으로 단순한 이미지 표현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흐름도'를 통한 구성에 집중하여 전개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작품의 내용과 무대표현매체의 유기적 연관성을 통해 관객에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을 적용한 무용창작작품 「휘(暉), 빛의 노래」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자는 현대사회에서의 조화와 소통의 관계를 주제로 하여

오행의 상생상극의 원리가 잘 드러나 있는 대상인 단청(丹青)을 모티브로 작품을 표현하였다.

연구자는 음양오행에 관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무용창작작품 「휘(暉), 빛의 노래」의 주제와 내용을 설정하고, 작품의 주제를 전달함에 있어 상생상극론을 적용하여 인간 간의 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이미지를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오행의 기운을 가진 ‘색’을 ‘나(휘, 暉)’라는 개인으로 표현하면서 각 색에 오행의 사상들을 부여하고 색과 색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단청에서 나타나는 배색의 조합이 통합과 상생을 지향하는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논리적인 흐름을 구성하였다. 즉 오행의 기운을 가진 다섯 가지 색과 색 배열의 질서가 활용된 단청의 이미지를 적용하여 작품화한 것은 배색의 이미지를 각 오행의 기운을 가진 ‘내’가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 필요한 조화와 소통이 잘 어우러져 있는 삶의 모습을 대안으로서 제시하는 것을 주제로 표현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가진다.

작품의 구성은 단청의 이미지를 분석한 연구를 토대로 하여 ‘고색(古色)’, ‘중첩(重疊)’, ‘휘(暉), 빛의 노래’라는 세 개의 장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장에서 나타내 고자 하는 사상을 안무에 적용하여 작품을 전개하였다.

표현방식에 있어서는 문헌자료의 선행연구와 함께 작품의 춤사위와 공간구성, 의상, 음악 등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의 원리와 관련된 시청각자료를 활용한 연구를 통하여 작품의 구성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내용과 구성의 긴밀한 관련성을 갖고 표현한 무용창작작품 「휘(暉), 빛의 노래」의 총체적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

첫째, 오행의 상징성은 작품 속에서 ‘길’, ‘색채’, ‘토(土)’의 형태로 표현된다. ‘길’의 표현은 무대의 공간적 구성에서 주제를 전개함에 있어 상징적인 의미에 그 깊이를 더하고 있는데, 오행의 특징을 나타낸 장면들은 각각 작품의 내용, 무용수의 성격, 무용수들 간의 관계, 춤사위 등에 있어 ‘길’의 표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작품의 흐름에 따라 표현되고 있다. ‘색채’적인 측면은 각 오행의 특성을 무용수들

에게 색으로 적용한 것으로 무용수들의 움직임에 고색단청의 이미지가 시각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토(土)’의 역할은 오행 중에 양(陽)적인 측면과 음(陰)적인 측면을 함께 지니는 토가 관계적인 측면에서 목(木), 화(火), 금(金), 수(水)를 아우르는데, 이러한 특성은 작품에서 ‘어울림, 소통, 조화로움’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토의 중화, 중용의 작용으로 나타난다.

둘째, 상생상극의 상반상성(相反相成)은 작품의 공간구성에 적용된 원리로 ‘오행의 상생상극 흐름도’, ‘중적(縱的) 대무’, ‘단청의 당초무늬’, ‘음양의 순환구도’로 표현된다. ‘오행의 상생상극 흐름도’는 질서 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우주의 흐름을 오행의 생상상극 흐름도에 적용하여 서로 대립하고 의존하는 관계를 제시한 것이다. ‘중적(縱的) 대무’는 상극관계의 음의 간색인 규색[金]과 양의 간색인 정색[火]의 상충관계를 중적(縱的) 대무의 관계로 구성한 것으로 대립적이면서도 상보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단청의 당초무늬’는 서로 상승하고 보완하는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단청의 당초무늬를 형상화한 것으로, 대칭과 비대칭의 대형을 보여주며 상호간의 조화를 꾀함으로써 대립적이면서도 상보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음양의 순환구도’는 생하기도 하고 극하기도 하며 일어난 모든 현상을 상생에서 상극, 상극에서 다시 상생으로 가는 음양원리의 순환구도를 이루게 한 것이다.

셋째, 도(道)와 무(無)의 전화성(轉化性)은 작품의 주제에 적용한 원리로, 오행의 상호작용, 상호변화를 상생상극의 관계를 통하여 우주만물의 기운이 서로 어우러짐을 상징한 조화와 화합의 모습이 도(道)와 무(無)에 이르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작품의 총체적인 특성은 음양오행의 작용원리에 단청을 모티브로 적용하여 구성한 오행의 상징성, 상생상극의 상반상성, 도(道)와 무(無)의 전화성을 바탕으로 하여 작품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표현된 공간과 춤사위, 의상, 음악 등에서 함축하고 있는 의미와 춤의 구성에 나타난 오행의 개념은 서로 어우러져 작품의 내용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인간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과 유사한 현상으로 보고, 그 맥락에서 오행의 상관관계를 통해 서로 연관된 속성과 특징을 분석하여 인간과 사회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21세기의 현대인들은 개인, 문화, 지역 등 소위 ‘다름’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에서 비롯되는 모든 갈등과 충돌을 늘 경험하고 있으며, 그것을 스스로 극복하고 적응하고자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오행의 일반적 특성에 적용시키려는 접근은 일상적인 관점에서 출발하였으나, 나(自)와 너(他), 과거와 현재, 개인과 집단 등 상반된 요소들의 경계를 넘나들며 폭넓게 적용할 수 있었다. 이를 ‘단청’이라는 모티브와 연결하여 그 고유의 특성을 적용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우리의 전통을 통해 되돌아보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춤을 동양사상이라는 철학적 근거를 통해 연구하고 재해석함으로써 한국춤의 새로운 구성과 춤사위를 모색하는 작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통사상에서 찾은 조화와 소통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표현적 발상을 통해 새로운 안무적 대안을 도출하고, 그 대안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 참고문헌

- 권일찬(2010). 『동양과학개론』. 청주: 충북대학교 출판부.
- 김재두(2006). 『음양오행의 우주세계』. 서울: 대보학당.
- 우실하(1998). 『전통문화의 구성원리』. 서울: 소나무.
- 이성환, 김기현 공저(2002). 『주역의 과학과 道』. 서울: 정신세계사.
- 이은봉(1985). 음양사상의 해학적인 설명. 『한국종교의 이해』. 서울: 집문당.
- 정병국(2011). 『문화, 소통과 공감의 코드』. 파주: 동방서원.
- 한동석(2001).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
- 김 용(2008). 현행 오방청용무의 역학적 해석. 『한국무용사학』, 9: 69-95.
- 김지희(2005). 궁중춤과 민속춤의 춤사위 비교 연구(2)-음양오행의 상생상극 원리를 바탕으로. 『대한무용학회지』, 43: 39-58.
- 문은배, 김가람(2012). 한국전통색의 상생간색과 상극간색에 관한 연구: 이수신

편과 규합총서를 중심으로. 『한국색채학 논문집』, 26(3): 25-32.  
송환아(1997). 한국 전통회화의 색채 미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유교학회』, 9(1):  
205-237.

논문투고일	2014년	2월	15일
심사일		2월	20일
심사완료일		3월	5일

## Abstract

# A Study on Creative Dance Work, Applying the Co-Existence and Incompatibility Principles of Yin-Yang Five Elements

- 「Hue(暉), Song of Light」 -

Kyung Eun Park\* · Myung Sook Kim\*\*

*Lecturer of Dance,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of Dance,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relates to the 「Hue(暉), song of light」, a dance work created by Park, Kyung eun(2012), which incorporates the principles associated with co-existence and incompatibility of yin-yang five elements. This author adopted the motif from Dancheong(traditional multicolored paintwork on wooden buildings, 丹青), which provides an insight into the coexistence & incompatibility principles of the Five Elements, to highlight the harmony and communication in contemporary society as the subject.

This author defined the theme and substances of the creative dance work titled 「Hue(暉), song of light」 through the literature study on the ying-yang Five Elements and explored the images that could embody human relationship by applying the co-existence & incompatibility theory in conveying the subject of the artwork. As a result, the 'color', which has the energy of the Five Elements, was expressed as the individual called 'I(Hue, 暉)' while assigning the ideology of the Five Elements to each color and analyzing the relationship that occurs between the colors to form a logical flow so as to ensure that the combination of the colors revealed in dancheong could lead to the coexistence & incompatibility theory of the yin-yang Five Elements that pursues the integration and co-existence.

This artwork was divided into three subjects, which are 'antique look(古色)', 'overlay(重疊)', 'Hue(暉), song of light', based on the study that analyzed the image of Dancheong, and the ideology intended to be explained in each Chapter was applied to the choreography. In relation to the method of expression, visual materials related to the co-existence & incompatibility principles of yin-yang five

elements - such as the spatial configuration of artwork, dance style, costumes, music, etc - were used for structuring the artwork, along with the preceding literature studies.

The traditional ideology which was applied to this artwork provided the crucial criteria for organization the artwork based on the symbolcity of yin-yang Five Elements, contradictory and complementary properties of co-existence & incompatibility, and transformation of Thao and None. In that regard, this study represents an attempt for new formation of Korean dance and the dance styles through the research and reinterpretation of the Korean dance based on the philosophical ground, i.e., the 'Oriental Ideology'.

Thu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derived new choreographic alternative through creative and expressive conceptualization based on the concept of harmony and communication which are identified in traditional ideology, and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alternative, and in that sense, the study on the artwork, titled 「Hue(暉), song of light」which applied the principles of yin-yang five elements, is meaningful.

**keywords:** Creative Dance(창작무용), dance style(춤사위), Yin-Yang Five Elements (음양오행), effective principle of dance style(춤사위의 작용원리), Dancheong(단청)